

獨立運動과 新安郡의 考察

單位民族의 歷史記錄은 周邊民族의 역동적 相互作用으로 記述되고 있다. 멀리 로마帝國은 흉노族의 侵略을 물리치기 위해 傭兵으로 武裝시킨 고트族에 의해 滅亡되었다.

그러나 로마帝國의 滅亡은 로마帝國을 지탱했던 支配階級이 亡했다는 事實일뿐 國民들이 다 죽었다는 事實은 아니다.

20世紀 出發을 前後하여 西洋의 初期 機械 文明으로 武裝한 日本의 軍閥은 非物質的 精神 文明의 朝鮮을 侵略하여 五百年을 이어온 歷史의 脈을 끊었으며, 나라를 잃은 悲劇 속에서 그들에 의해 前近代적인 殘滓내지 버려야할 遺産으로 내팽개친 슬픈 歷史를 되씹게 했다.

우리는 韓日合邦 以後 8·15 光復까지의 36年間을 歷史는 日帝時代라 한다.

1910年代의 10年間은 그들의 악랄한 憲兵統治로 日帝의 총칼앞에 숨도 크게 쉬지 못했고, 3·1民族運動의 蠟燭은 日帝로 하여금 文化政治라는 슬로우건을 내걸게 만들었으나 1930年代의 滿州事變을 계기로 所謂 內鮮一體라는 同化政策을 強要하여 어느 植民政策에도 없는 創氏改名까지 強要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韓國人이 받은 近代教育은 日本天皇의 嫡子를 만드는 民族魂 抹殺 政策에 불과했으며, 所謂 그들이 말하는 近代的 建築이나 施設은 한마디로 民族經濟 侵蝕과 약탈의 手段이었다.

그것은 아직도 到處에 있는 日帝時의 建物과 심지어는 現代의 建物속에 남아있는 日帝의 殘滓들이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日帝가 景福宮 勤政殿 앞에 세운 舊 朝鮮總督府가 그렇고 日式 藏書閣이 그렇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나마 韓國은 우리가 近代化 시켰다.」라면서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 요즈음 近代化 概念에 對한 論難이 일만큼 西歐文明에 대한 批判이 加重되고 있지만 開化를 民族 主體的으로 完遂못했기 때문에 그 跛行성과 被害는 지금까지도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日本政權은 戰後體制를 清算하고 主體的으로 再定立 하겠다는 覺悟로 새로운 新國家主義 즉 戰後總決算을 主張하고 있으며, 被害 當事國들의 反對와 憂慮속에서 P·K·O 法을 制定하여 派兵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日本의 變模를 볼 때 被害國民인 우리는 無心히 넘길 수 없는 問題이며, 또다시 歷史의 悲劇이 되풀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잊고싶은 歷史이지만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될것이다.

이와같은 脈絡에서 日帝侵略에 맞서 鬪爭한 우리 郡民들과 功勳者를 中心으로 本誌에 記述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 編輯者 註 -